

2021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영민 (상편)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영민-상편 ◀

1.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 (1)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 (10문제)-----1쪽
- (2) 글로 쓰는 나의 꿈 (21문제)-----7쪽
- (3) 시각 상과 촉각 상 (47문제)-----16쪽

2. 문학의 네 가지 빛깔

- (1) 향수 (54문제)-----38쪽
- (2) 장마 (56문제)-----62쪽
- (3) 개를 흠치는 완벽한 방법 (44문제)-----98쪽
- (4) 한 그루 나무처럼 (35문제)-----129쪽

3. 영킨 삶의 실타래를 푸는 지혜

- (1)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38문제)-----149쪽
- (2)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32문제)-----170쪽

4. 우리말, 바르게 읽고 쓰기

- (1) 음운의 변동 (63문제)-----190쪽
- (2) 우리말 바로 쓰기 (75문제)-----214쪽
- (3)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20문제)-----240쪽

◆빠른 전체 정답-----254쪽

◆해설-----257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영민-상편 ◀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영민-상편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은 난이도가 낮은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로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영민-상편 ◀

Q. 선행 필요한가?

▶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의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로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 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딱 뿌러지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 이걸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망망의 숲 한켠이 된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이를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매번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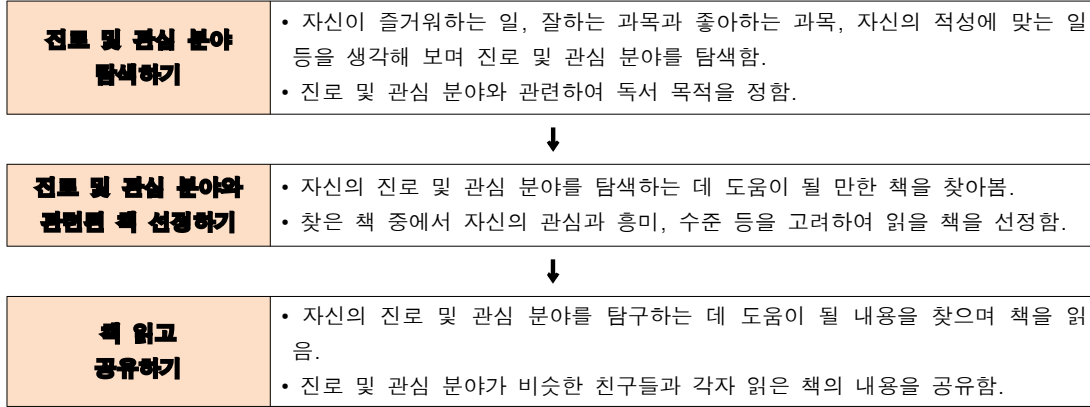
나는 이번 () 교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교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 영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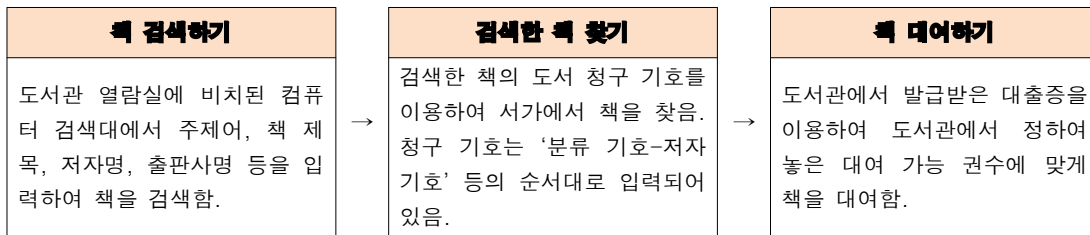
1.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독서 활동 과정



2. 진로 및 관심 분야 탐색을 위한 다양한 독서 활동

책 읽기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 수준 등에 맞는 책을 자발적으로 찾아 읽음.
독서 일지 쓰기	독서 후에 책의 주요 내용,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정리하여 기록함.
더 찾아 읽기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해서 더 읽고 싶은 책을 찾아 읽으며 내용을 보충하거나 심화함.
토의하기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과 책 읽고 난 후에 책 내용을 공유하거나 주제를 선정하여 이야기를 나눔.

3. 독서 활동을 위한 도서관 활용 방법



영대부속고등학교 (경기)

1. 진로 및 관심 분야의 탐색을 위한 독서 활동 과정을 차례대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저 자신의 기호, 취미,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독서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 ② 도서 열람실에 비치된 검색대에서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검색어를 통해 책을 검색한다.
- ③ 관심 분야에서 내용이 다소 벗어나더라도 되도록 많은 책을 찾고, 책의 내용이 자신의 수준에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이지는 아닌지 살펴본다.
- ④ 독서 일지를 쓰기 전에 먼저 독서 계획을 세우고, 독서 계획에 따라 독서할 시간, 분량 등을 정해 둔다.
- ⑤ 책을 읽고 독서 일지에 항목에 따라 주요 내용, 인상 깊은 문장과 그 이유 등을 기록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 자, 1학년 OO반 학생 여러분. 학교 도서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자신의 진로나 관심분야에 대해 탐색해보는 모둠 활동을 했었죠? 오늘은 그 탐색 활동의 연장으로 이곳 도서관에서 진로와 관련된 도서를 찾아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진로 관련 책 선정하기 및 독서 과정**에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데, 그건 선생님이 나누어준 학습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생 1 : 선생님, 그렇다면 책은 서가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막 고르면 되나요?

선생님 : 마음대로 고르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도서관 활용 방법이 있으니 이것을 먼저 참조하는 게 좋겠네요. 우선 도서관 인터넷 카페에 비치된 컴퓨터 검색대에서 주제어, 책 제목, 저자명, 출판서명 등을 입력하여 원하는 책을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책들이 검색될 거예요. 만약 검색 결과 중에서 찾아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책의 **㉡도서 청구 기호**를 반드시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호야말로 여러분들이 서가에서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는 열쇠 같은 것이니까요. 도서 청구 기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에도 있고, 따로 배부한 학습지에도 요약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조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수업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총 열권의 진로 관련 책을 찾아 활동지에 리스트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읽고 싶은 한 권의 책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학생 2 : 저기, 한 권의 책을 선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설마 그 책을 진짜로 읽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선생님 : 하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한 권의 진로

관련 서적을 실제로 읽어야 하고요, 그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4월 첫째 주에 글쓰기 수행평가를 실시할 거예요. **㉢글쓰기의 과정**과 특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책을 골라야 하겠고, 또 독서 활동도 수행평가 실시일 전까지 잘 완료해야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 힘을 내기 바랍니다.

학생 3 : 선생님, 정말 너무하세요!

건대부속고등학교 (서울)

2. 다음 중 밑줄 친 ㉠과 관련된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학생은?

- ① 지효 : 책을 고르기 전에 나는 먼저 내가 책을 읽는 목적을 생각해볼 거야. 내가 읽을 책은 내 진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어.
- ② 정연 : 책을 고를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적절한 분량인지를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 책이 두꺼우면 읽기가 힘들니까 다들 무조건 분량이 적은 얇은 책을 골라야만 해.
- ③ 나연 : 나는 내가 평소애 즐겨읽하는 일,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다음 최대한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생각해 보면서 관련 도서를 선정하려고 해.
- ④ 채영 : 책의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지나치게 전문적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는 좀 읽기가 꺼릴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아직 진로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좀 더 기초적인 책을 읽고 싶거든.
- ⑤ 다현 : 나는 진로 관련 책을 선정할 때는 그 책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좋은 편인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편이야. 그래서 좋은 평가가 내려진 책이라면 내가 읽어도 충분히 괜찮을 거야.

건대부속고등학교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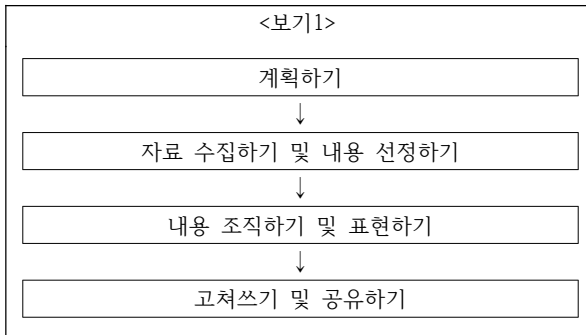
3. 다음 학생들 중에서 밑줄 친 ㉡에 대해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학생은?

- ① 은하 : 서가에서 책을 찾을 때는 도서관 인터넷 카페에 비치된 컴퓨터 검색대에서 검색한 책의 도서 청구 기호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예린 : 도서 청구 기호는 분류 기호와 저자 기호가 순서대로 입력되어 있어.
- ③ 유주 : 나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역사와 관련된 분류 기호는 900번 쪽이야.

- ④ 엄지 : 나는 예술에 관심이 많으니까 600번 쪽 분류기호가 붙어 있는 서가로 가서 책들을 찾아봐야 되겠어.
- ⑤ 소원 : 저자 기호는 저자명을 숫자로만 나타낸 기호로, 같은 저자의 자료를 한곳에 모아 주는 역할을 해.

건대부속고등학교 (서울)

4. <보기1>은 밑줄 친 ㉠을 표로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보기2>의 ㉡~㉤가 <보기1>의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기2>
- ㉡ 글의 구조에 맞는 내용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게 연결하여 글을 작성함.
 - ㉢ 문장 표현, 글의 통일성, 매체의 특성, 예상 독자의 수준과 관심 등을 고려하여 글을 점검하여 수정함
 - ㉣ 글로 쓸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과 알고 싶은 내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 ㉤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쓰기 맥락을 분석함
 - ㉥ 쓴 글을 친구들과 나누어 보며, 서로의 글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음

- ① ㉡ - 고쳐쓰기 및 공유하기
- ② ㉢ - 계획하기
- ③ ㉣ - 자료 수집하기 및 내용 선정하기
- ④ ㉤ - 내용 조직하기 및 표현하기
- ⑤ ㉥ - 계획하기

서울삼육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도서 청구 기호' 도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기호	듀이십진분류법	㉠
000	총류	총류
100	철학	철학
200	종교	종교
300	사회학	사회학
400	㉡	㉢
500	㉣	㉤
600	㉥	㉦
700	㉧	㉨
800	문학	문학
900	역사	역사

- ① ㉢와 ㉤에는 동일한 항목이 들어간다.
- ② 듀이십진분류법을 개량한 것이 ㉠의 한국 십진분류법이다.
- ③ ㉤ 항목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예술'이다.
- ④ ㉡ 항목은 ㉥ 표에서 ㉨ 항목으로 들어간 '언어'이다.
- ⑤ ㉦ 항목은 지식이 기술로 발전된 '기술 과학' 항목이다.

영북여자고등학교 (경기)

6. 진로 및 관심 분야의 탐색을 위한 독서 활동 과정을 차례대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저 자신의 기호, 취미,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독서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 ② 도서 열람실에 비치된 검색대에서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검색어를 통해 책을 검색한다.
- ③ 관심 분야에서 내용이 다소 벗어나더라도 되도록 많은 책을 찾고, 책의 내용이 자신의 수준에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이지는 아닌지 살펴본다.
- ④ 독서 일지를 쓰기 전에 먼저 독서 계획을 세우고, 독서 계획에 따라 독서할 시간, 분량 등을 정해 둔다.
- ⑤ 책을 읽고 독서 일지에 항목에 따라 주요 내용, 인상 깊은 문장과 그 이유 등을 기록한다.

용호고등학교 (경기)

7. 다음은 쓰기 맥락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글이다.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쓰기 맥락]

- 목적 : 나의 꿈인 '광고인'에 대하여 소개(정보 전달)
- 예상독자 : 우리 학교 학생들
- 매체 : 인쇄 매체(교지)

[학생이 쓴 글]

계단에 에베레스트산이 그려져 있고 '누군가에게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입니다.'라고 쓰인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이 계단을 오르는 것은 험난한 산을 오르는 것처럼 어렵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 보게 하는 광고입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고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웃음과 감동을 전하는 광고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편의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광고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즉, 광고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업무 중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광고인들이 모여 공동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광고인은 직무에 따라 광고주와 소통하며 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 기획자, 광고의 글귀를 만드는 광고문안가(카피라이터), 상업적 메시지를 시각 언어로 표현하는 아트 디렉터, 광고 제작물의 책임자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인이 되기 위해 청소년기에 준비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많은 상식에 능통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둘째, 여행, 영화, 전시회 등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느끼며 감수성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셋째, 광고와 관련해 참여할 수 있는 대화나 행사에 나가 직접 광고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광고인이 되고 싶습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라는 속담처럼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광고인으로서의 길을 나아가려 합니다.

- ① 실제 광고의 예를 제시하면서 흥미를 유발해야겠어.
- ② 교지에 수록될 글이니 공식적 언어를 사용해야겠어.
- ③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광고인의 다양한 업무를 제시해야겠어.
- ④ 광고와 관련해 참여할 수 있는 대화나 행사를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소개해야겠어.
- ⑤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을 위해 청소년기에 준비할 수 있는 일을 언급해야겠어.

울산동천고등학교 (울산)

8.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공유할 때 올바른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의 내용이 관심 분야에 적합한지 생각해본다.
- ② 친구가 말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메모를 한다.
- ③ 대화 후, 더 알고 싶은 내용과 다른 책이 있는지 생각한다.
- ④ 나와 의견이 다른 친구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알리려고 적극적으로 반박한다.
- ⑤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친구들에게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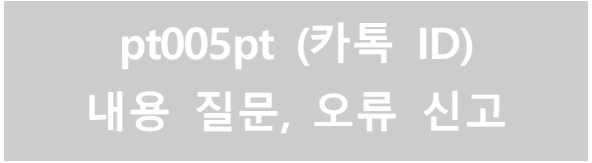
공광고등학교 (서울)

9. 독서 일지를 쓸 때의 장점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ㄱ. 작가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
- ㄴ. 읽은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ㄷ.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해 볼 수 있다.
- ㄹ. 책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읽을 수 있다.
- ㅁ. 책 내용의 타당성, 신뢰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ㄷ, ㄹ ④ ㄹ, ㅁ
- ⑤ ㄷ, ㅁ



서울삼육고등학교 (경기)

10. <보기>의 도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기호	(가)	(나)
000	㉠	㉡
100	㉢	㉣
200	㉤	㉥
300	사회 과학(사회학)	사회 과학(사회학)
400	㉦	㉧
500	㉨	㉩
600	예술	㉪
700	㉫	㉬
800	㉭	㉮
900	역사	역사

* (가)와 (나)는 다른 종류의 십진분류법이다.

- ① ㉨에 들어갈 항목은 '기술 과학'이다.
- ② (가)의 ㉫는 (나)에서는 ㉨에 위치한다.
- ③ ㉤과 ㉥에는 동일하게 '종교'가 들어간다.
- ④ (가)는 듀이 십진분류법이고, (나)는 한국 십진분류법이다.
- ⑤ ㉠와 ㉡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항목은 태초에 인간과 자연이 혼돈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먼저 배치되었다.

- 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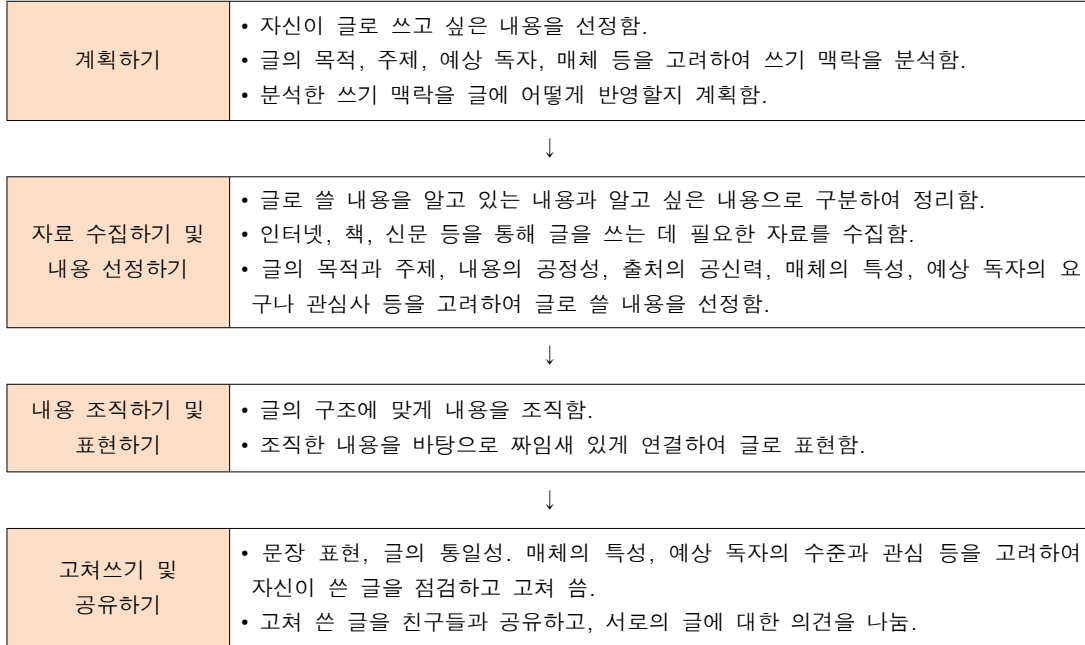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기본 문제
 오류 체크
 자습서 파일
 시험 대비 자료

오답 노트 (박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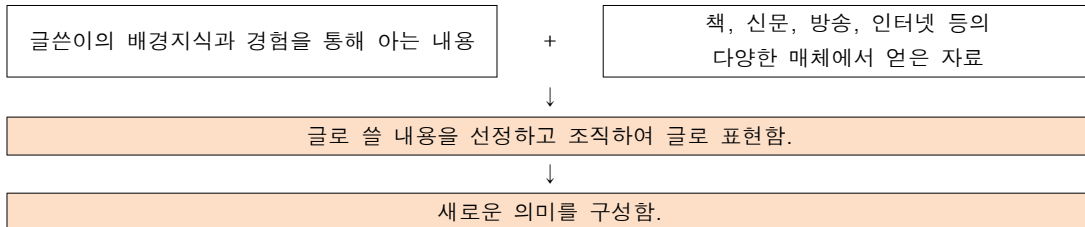
틀린 문제 번호	틀린 이유, 새롭게 알게 된 것, 반성 등을 기록

“글로 쓰는 나의 꿈” 정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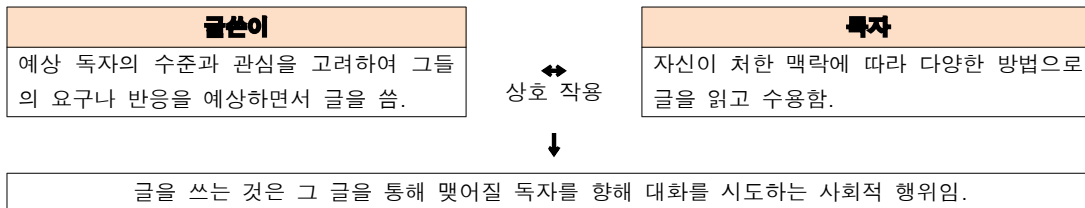
1. 글쓰기 과정



2.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쓰기



3.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쓰기



영특여자고등학교 (경기)

1. <보기>와 같이 글쓰기 과정을 도식화했을 때,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보기>

(가) 계획하기

ㄱ. 글을 쓰는 목적에 근거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ㄴ. 나이, 성별, 대상의 흥미 및 배경지식의 정도 등을 분석하여 예상 독자를 구체화해야 한다.

↓

(나) 자료 수집하기 및 내용 선정하기

ㄷ.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집한 믿을 만한 자료인지 판단해야 한다.

ㄹ. 유력한 권위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된 자료를 수집·선정해야 한다.

↓

(다) 내용 조직하기 및 표현하기

ㅁ. 글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ㅂ. 글을 쓰면서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자료를 더 수집하여 내용을 보충하며,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글의 끝부분에 기록해 준다.

↓

(라) 고쳐쓰기 및 공유하기

ㅅ.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을 썼는지, 여러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적절하게 잘 조합하였는지 살펴본다.

ㅇ. 명료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예상 독자의 수준, 관심, 흥미를 고려해서 글을 썼는지 살펴본다.

- ① ㄱ, ㄴ, ㄷ, ㅇ ② ㄴ, ㄷ, ㅁ, ㅅ
- ③ ㄷ, ㅁ, ㅂ, ㅇ ④ ㄹ, ㅁ, ㅅ, ㅇ
- ⑤ ㄹ, ㅂ, ㅅ, ㅇ

영디여자고등학교 (경기)

2. 글쓰기가 갖추어야 할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쓰기가 독자를 향해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 ② 예상 독자와 사회적·시대적 요구 등을 반영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자기 생각이나 느낌 등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독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 ④ 쓰기는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독자 및 사회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아야 한다.
- ⑤ 글쓰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정서를 독자가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읽고 수용할 수 있도록 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 자신이 탐색한 진로 관련 내용을 관심 분야가 같은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누리소통망(SNS)에 글을 올리고자 한다.

• 수집한 자료

알고 있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의 구성 요소 •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 •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
알고 싶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공학의 전망은 어떨까? • 로봇 공학에 필요한 지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

• 초고

많은 전문가가 미래 사회의 @유산 직종으로 인공 지능 전문가, 로봇 공학자, 로봇 윤리학자 등 로봇과 관련된 직종을 꼽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로봇 공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 꿈이기도 한 로봇 공학자를 소개합니다.

로봇 공학자는 산업, 군사, 의료,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입니다. 로봇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장치, 생각하는 장치, 움직이는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개발하는 데에는 여러 공학 분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전기·전자 공학에서 로봇 내부의 회로와 같은 전기 신호를 설계하고, 컴퓨터 공학에서 로봇이 상황을 판단하고 동작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체제를 개발하며, 기계 공학과 생체 공학에서 로봇의 형태와 움직임을 연구합니다. @이처럼 로봇 공학은 다양한 공학 분야가 융합되어 있으므로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계 최초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자율 주행 자동차를 개발한 홍○○의 말에 따르면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호기심을 갖고 전혀 관련 없는 것들도 연결할 수 있는 창의성을 지녀야 하고, 둘째로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지녀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진심을 지녀야 합니다. @제 주변 사람 중 가장 따뜻한 가진 사람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로봇은 인간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능과 감성으로 인간과 소통하고 공존하는 존재가 될 것이며, 앞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봇 공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 아직은 상상 속의 일이지만,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 내는 로봇 공학자로 성장해 나갈 저의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3. 윗글을 작성하기 위해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득이 목적인 글이니까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활용해보자.
- ② 내가 탐색한 진로와 관련된 글이니까 화제는 ‘로봇공학자’로 정해야겠어.
- ③ 나와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이 읽을 테니 관심과 흥미를 끌 필요는 전혀 없겠네.
- ④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보다는 상황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써야지.
- ⑤ 인터넷 매체에 올릴 글이니 독자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힘들고 의견을 나누기가 힘들겠구나.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4. 초고에 들어갈 내용을 선정할 때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인가?
- ②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얻은 믿을 만한 자료인가?
- ③ 어느 한쪽의 의견만 반영한 설득력 있는 자료인가?
- ④ 글을 전달하려는 매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인가?
- ⑤ 예상 독자의 요구나 기대, 관심 등에 부합하는 자료인가?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5. ㉠~㉥를 고쳐 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단어의 선택이 잘못되었으므로 ‘유망’으로 수정한다.
- ② ㉡ : 주술관계가 어색하므로 ‘일을 합니다.’로 수정한다.
- ③ ㉢ : 응집성을 해치므로 접속어인 ‘하지만’으로 수정한다.
- ④ ㉣ : 단어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갖추어야’로 수정한다.
- ⑤ ㉤ : 문단의 통일성을 저해하므로 문장 전체를 삭제한다.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6. <조건>에 따라 초고의 ㉦ 부분을 완성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로봇의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
- 문맥에 어울리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로봇은 머지않아 우리와 아주 가까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 ② 이런 미래 전망을 고려할 때 로봇은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입니다.
- ③ 저는 이런 로봇공학계의 새싹이지만 로봇공학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 ④ 로봇은 곧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 ⑤ 지금은 걸음마 단계지만, 미래의 로봇공학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7. ‘수집한 자료’와 ‘초고’를 보고 ㉦ ~ ㉨의 답을 서술하십시오.

<조건>

- ‘-다.’ 형태의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 ‘수집한 자료’의 ‘알고 있는 내용’과 ‘알고 싶은 내용’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각각 적으시오.

㉧ ‘알고 있는 내용’ 중 ‘로봇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초고’에서 찾아 적고, 필자가 사용한 서술방식을 적으시오.

㉨ ‘알고 싶은 내용’ 중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세 가지를 ‘초고’에서 찾아 적고, 이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 서술방식을 적으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 내는 로봇 공학자

많은 전문가가 미래 사회의 유망 직종으로 인공 지능 전문가, 로봇 공학자, 로봇 윤리학자 등 로봇과 관련된 직종을 꼽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로봇 공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 꿈이기도 한 로봇 공학자를 소개합니다.

로봇 공학자는 산업, 군사, 의료,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로봇을 개발하는 데에는 여러 공학 분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전기·전자 공학에서 로봇 내부의 회로와 같은 전기 신호를 설계하고, 컴퓨터 공학에서 로봇이 상황을 판단하고 동작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체제를 개발하며, 기계 공학과 생체 공학에서 로봇의 형태와 움직임을 연구합니다. ㉢이처럼 로봇 공학은 다양한 공학 분야가 융합되어 있으므로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계 최초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자율 주행 자동차를 개발한 홍○○의 말에 따르면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로 호기심을 갖고 전혀 관련 없는 것들도 연결할 수 있는 창의성을 지녀야 하고, 둘째로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지녀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진심을 지녀야 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로봇은 인간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능과 감성으로 인간과 소통하고 공존하는 존재가 될 것이며, 앞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봇 공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가족 같은 로봇, 아직은 상상 속의 일이지만,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 내는 로봇 공학자로 성장해 나갈 저의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

화명고등학교 (부산)

8. 윗글을 쓰기 위한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 ① 나의 꿈을 알리는 글이니까 주제는 ‘로봇 공학자에 대한 소개’로 정해야겠어.
- ② 로봇 공학자로 성장할 나의 미래를 응원에 달라는 당부의 말은 주제와 큰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 ③ 다른 사람이 내 꿈인 로봇 공학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로봇 공학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거야.
- ④ 나와 관심 분야가 비슷하거나 로봇 공학자가 어떤 직업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진로 탐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생각이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해야겠어.

- ⑤ 요즘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리는 것이 좋겠어. 블로그나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하며, 독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독자와 더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화명고등학교 (부산)

9. <보기>는 윗글을 쓰기 위해 점검한 내용이다. ㉠~㉤ 중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기>	
알고 있는 내용	㉠로봇의 구성 요소 -로봇은 인식하는 장치, 생각하는 장치,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됨.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 -로봇 공학자는 다양한 산업과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함. •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 -산업용 로봇부터 군사용 로봇, 의료용 로봇, 가정용 로봇 등과 같은 비산업용 로봇까지 그 활용 분야가 다양함.
알고 싶은 내용	㉢로봇 공학의 전망은 어떠할까? ㉣로봇 공학에 필요한 지식에는 무엇일 있을까?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

- ① ㉠ ② ㉡ ③ ㉢
- ④ ㉣ ⑤ ㉤

화명고등학교 (부산)

10. ㉠~㉤을 고쳐 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로봇 공학의 중요성과 미래’로 고쳐 쓴다.
- ② ㉡ : 문맥상 적절한 단어인 ‘공존’으로 고쳐 쓴다.
- ③ ㉢ : 지시하는 범위를 고려하여 ‘그처럼’으로 고쳐 쓴다.
- ④ ㉣ : 앞 문단과의 내용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래서’로 고쳐 쓴다.
- ⑤ ㉤ :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로 고쳐 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제목 : 내 꿈은 로봇 공학자

많은 전문가가 미래 사회의 유망 직종으로 인공 지능 전문가, 로봇 공학자, 로봇 윤리학자 등 로봇과 관련된 직종을 꼽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로봇 공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일까요? 제 꿈이기도 한 로봇 공학자를 소개합니다.

로봇 공학자는 산업, 군사, 의료,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입니다. 로봇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장치, 생각하는 장치, 움직이는 장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개발하는 데에는 여러 공학 분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기·전자 공학에서 로봇 내부의 회로와 같은 전기 신호를 설계하고, 컴퓨터 공학에서 로봇이 상황을 판단하고 동작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체제를 개발하며, 기계 공학과 생체 공학에서 로봇의 형태와 움직임을 연구합니다. 이처럼 로봇 공학은 다양한 공학 분야가 융합되어 있으므로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항상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계 최초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자율 주행 자동차를 개발한 홍○○의 말에 따르면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호기심을 갖고 전혀 관련 없는 것들도 연결할 수 있는 창의성을 지녀야 하고, 둘째로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지녀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진심을 지녀야 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로봇은 인간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능과 감성으로 인간과 소통하고 공존하는 존재가 될 것이며, 앞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봇 공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가족 같은 로봇, 아직은 상상 속의 일이지만,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 내는 로봇 공학자로 성장해 나갈 저의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

(나) 고려 사항

- 로봇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
-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제시한다. -----㉡
- 로봇 공학의 전망을 제시하여 로봇 공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
- 글의 목적에 맞게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작성한다. -----㉣
- 질문을 통해서 예상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

학생여자고등학교 (울산)

11. (가) 글을 쓰기 위해 (나)와 같이 고려하였을 때, 글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 ① ㉠ ② ㉡ ③ ㉢
- ④ ㉣ ⑤ ㉤

학생여자고등학교 (울산)

12. (가) 글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을 생각한 학생 중, 고쳐 쓰기의 수준별 단계가 다른 사람은?

- ① 홍길 : 밑줄 친 ㉠ 부분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니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 ② 대녕 : '㉡따라서'를 '그렇다면'으로 바꾸면 문단의 연결이 더욱 자연스럽겠어.
- ③ 성호 : 글이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잘 구성되어 있고 내용도 적절하니 글의 구성을 바꿀 필요는 없겠어.
- ④ 연식 :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로봇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여러 공학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좋은 것 같아.
- ⑤ 지용 : 제목을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 내는 로봇 공학자'로 수정하면 로봇 공학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날 것 같아.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8. ②

- ㉠ 각 연이 4~5행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리듬감 형성
-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리듬감 형성
- ㉢ ~곳, 그곳이~를 통해 알 수 있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음, 헛갈리지 마!◀

음수 vs 음보

ㄱ.음수: 글자 수
 ㄴ.음보: 끊어 읽는 호흡의 단위 (단순히 어절의 단위가 아님)

9. ③

- ▶직유법: 옛날같이, 불경처럼...
- ① 옛이야기 지줄대는처럼 의인화로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을 나타냄 ② 마루를 거울로 비유하여 사물의 모습을 표현함 ④ '정주 객산 / 차 가고 배가는 곳'처럼 산인데 차나 배가 나는 말도 안되는 역설의 상황을 제시하여 고향을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냄 ⑤ 청자는 기러기로 기러기는 화자와는 다르게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의인법 vs 활유법 (★★★)

ㄱ.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ㄴ.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2. 반어법 vs 역설법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10. ④

- ▶공감각적 심상은 없음
- ① 뒷마루에서의 특정 장면 서술이 자세히 묘사되어 회화

성이 두드러짐 ③ 뒷마루에 해당

13. ④

-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거나 황토성이 짙은 참신한 시어가 사용됨

▶넣어둬, 패턴 공략◀

'구체적', '사실적', '현실감', '생생함', '의성어 혹은 의태어' 사용 등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역동적: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

시에서 대상의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역동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보통 역동적인 분위기의 시는 대상의 움직임과 더불어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도 그와 어울리게 밝고 활발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많다.**

14. ②

- ㉠ 2행이 아닌, 4~5행임 ㉢ 쉽표나 마침표로 종결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시의 전개 방식 (★)

- ㄱ.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 ㄴ.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 ㄷ.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 ㄹ.대립적 전개
- ㅁ.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 ㅂ.선경후정: 경치+정서
- ㅅ.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

15. ④

- ▶화자의 일생이 아닌, 고향의 그리움을 담아냄
- ① <옛 이야기 지줄대는>: 의인화 ② 원경(풍경)에서 근경(집)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함 ③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설의적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ㄱ.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강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ㄴ.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논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2.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16. ⑤
 ① 사회 부조리는 시에 없음 ② 삶의 여유가 있음
 ③ 유년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이지 꿈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님 ④ 현실적인 공간이지 비현실적인 동화적 혹은 신비와는 거리가 멀다

▶응, 헛갈리지 마!◀

- *환상적: 생각 따위가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고 헛된.
- *동심: 어린이와 같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마음
- *동화적: 환상적+비현실적

17. ⑤
 ㄱ: 2~3음보가 주류임
 ㄴ: 된소리는 밝은 분위기와 거리가 멀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음수 vs 음보
 ㄱ.음수: 글자 수
 ㄴ.음보: 끊어 읽는 호흡의 단위 (단순히 어절의 단위가 아님)
2. 음보의 느낌
 ㄱ.3음보: 주로 하층, 빠름, 동적
 ㄴ.4음보: 주로 상층, 느림, 정적

18. ①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것이고 <보기>는 아버지와 고향의 그리움을 나타낼 뿐임

백석의 <고향>
 *주제: 고향과 혈육에 대한 그리움
 *해제: 이 시는 타향에서 병을 앓다가 병원을 찾아가던 화자가 고향 이야기를 하다가, 화자가 아버지처럼 섬기는 이(또는 아버지)와 의원이 친구 사이임을 알게 되어, 그를 통해 따스한 고향의 정을 느끼고 고향을 떠올리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에서 환기하는 정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고향이 불러일으키

는 따스한 정이다. 이 시는 이러한 정서를 인물 간의 대화와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서술하는 기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이 가족의 사랑과 이웃 간의 유대가 있는 공동체적 삶의 공간이라는 점은 반대로 화자의 현재 상황이 그만큼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19. ①
 ▶시적화자(나)가 작품 안에 직접 드러나 있다.
 ② (나)는 행과 연의 구분이 없음 ③ 둘 다 색채 대비는 없음 ④ 둘 다 설득적 어조가 아님 ⑤ (가)는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할 뿐임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색채어 (★)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색채어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2. 시적 어조의 종류 (★)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20. ②
 ① 한가한 모습임 ③ 후회의 정서는 없음
 ④ 이삭을 줍는 건 아내뿐임 ⑤ 가족이 우울한 건 아님

21. ③
 ① 내적 단련하고는 상관없음. 그리움의 공간일 뿐
 ② 실제 존재하는 공간임 ④ ⑤ 그곳은 추억이 있는 공간임

22. ②
 ▶바다가 아닌 누이의 머리를 나타냄

24. ③
 ▶㉠처럼 '반짝이는 아침 풀벌레 소리'도 청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짐.
 ④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시각의 청각화임.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공감각 vs 복합 감각 (★★)**
 ㄱ.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ㄴ.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 25.⑤
 ㉠ '지출대는', '함추름'은 우리말임.
 ㉡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은 촉각적 이미지를 부각 함.
- 27.①
 ▶ 위 시와 ①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갖고 있음.
 ②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③ 서러움과 연민
 ④ 광복에 대한 의지 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

29.②
 ▶ ㄴ: 여승이 되기까지 시간 역순으로 제시됨.

30.④
 ▶ 두 시 모두 현실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 있을 뿐임.

▶ 응, 헛갈리지 마! ◀

비난 vs 비판 (★)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

32.②
 ▶ ㉠의 산 평과 ㉡의 저 물은 감정이입의 대상임.

▶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객관적 상관물 vs 감정 이입 (★★★)
 ㄱ. 객관적 상관물: 대상을 통해 (대상과 유사하거나 일치 혹은 반대되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냄.
 ㄴ. 감정 이입: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 하여 대상과 일치되는 감정을 드러냄.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매였는가'
 *'펼 펼 나는 저 <피꼬리> / 암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워라 이 내 몸은'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외로움을 환기시키는 <빈 배>와 <피꼬리> 그리고 슬픔을 나타내는 <물>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 중 <물>은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하는 상태가 뚜렷하기에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33.④
 ▶ 윗글은 고단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유랑민의 처지인 털보네를 통해 비극적 삶의 모습을 보여줌.
 ① 윗글도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② 윗글과 <보기1> 모두 토속적 시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③ <보기1>와 윗글 모두 감각적 어휘와 비유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⑤ 윗글에만 해당.

<낡은 집>
 *주제: 일제 강점하의 유랑민의 비애
 *해제: 이 시는 폐허가 된 낡은 집을 소재로 일제 강점하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낡은 집에서 살다가 현실적 가난에 못 이겨 이국 땅으로 떠나야 했던 털보네 가족의 이야기를 제재로 하고 있는데, 이 작품 속의 화자는 털보네 셋째 아들의 어린 시절 친구로 설정되어 있다. 이 작품은 액자 구성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1, 2연과 마지막 연은 털보네가 떠나가 버려 흥가가 된 낡은 집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3~7연들은 털보네의 궁핍상과 유랑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35.⑤
 ▶ 특정 시구 '~는/던 곳', 후렴구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36.④
 ▶ (가)가 다양한 감각의 심상을 활용해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37.②
 ▶ ㉠㉡: 공감각 ㉢㉣: 촉각 ㉤: 청각
 style="text-align: center;">▶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시의 심상과 감각 (★★★)
 ㄱ. 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 산, 높은 하늘, 빨간 꽃)
 ㄴ. 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ㄷ. 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ㄹ. 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ㅁ. 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38.②
 ▶ ②는 홀로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나타내는데, 그리움을 나타내는 (가)와 (나)의 정서와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① 정체성에 대한 의문 ③ 극한 상황을 이겨내려는 의지
 ④ 산업화에 대한 비판 ⑤ 좋은 말의 아름다움과 힘

▶ 1등급 조언 ◀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 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40.②

- 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님.
- ③ 사라진 고향을 다시 되찾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님.
- ④ 감정의 절제가 아닌, 적극적으로 표현됨.

41.③

ㄷ: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의인법.
 ㄴ: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생생함을 전달하는 것이지 고향의 신비스러움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님.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의인법 vs 활유법 (★★★)

ㄱ.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ㄴ.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42.⑤

▶㉠: 가난하지만 정감을 나타내는 것이지 피폐한 농촌 현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43.③

▶(나)가 세대 간의 공존과 교감이 드러나 있다.

45.①

의인법: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직유법: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반복법, 설의법: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② 시적 화자의 그리운 정서가 ㉠에서 강조되고 있다.
- ③ ㉠은 시각적 심상이 형상화 된 구절이다.
- ④ 후렴구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임.
- ⑤ 실개천, 말, 화살, 서리, 까마귀 같은 향토적 소재를 통해 시적 화자 개인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빈출 비유법 (★★★)

1) 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2) 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

은 호수요)

- 3) 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4) 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 5) 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6) 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 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줄줄줄)
- 8) 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엇금엇금, 슬금슬금)

46.①

- ▶㉠의 '금빛 게으른 울음'과 ㉠의 '꽃처럼 붉은 울음'은 청각의 시각화임.
- ③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시각의 후각화)
- ④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시각의 청각화)

▶어머, 이견 외워야 해!◀

공감각 vs 복합 감각 (★★)

ㄱ. 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ㄴ. 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47.③

▶둘 다 시적 대상의 부재에 대해 깊은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아님.

50.④

㉠ [D]에서 시적화자는 여승이 된 여인에 대해 슬픈 감정이 있는 것이지 자기 성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음.

51.②

▶[B]에선 서글픔이 아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냄.

52.⑤

▶윗글과 ⑤ 모두 그리움(고향 / 님)의 정서를 나타냄.
 ① 지조와 절개 예찬 ③ 자연 예찬
 ④ 자연 속 한가함 ⑤ 봄밤의 애상

53.④

▶윗글은 특정 시구 ‘~는/던 곳’을 통해 <보기>는 ‘~없
는~’, ‘~르 일이다’를 통해 리듬감 형성.

① 윗글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
다. ② 윗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국토 서시>

*주제: 국토에 대한 뜨거운 사랑

*해제: 처음부터 저항이나 민중이니 하는 이야기를 들이
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시를 만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생각을 넓힐 수 있을 때 더 깊은 의미
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국토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풀잎이나 돌멩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섬세함을 보여 준다. 특히 ‘~할 수밖에 없
는 일이다’와 같은 당위성을 내세워 국토애와 조국애가
사치스런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들이 늘 새기고 살아가
야 할 운명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의 땅, 우리의 하늘,
우리의 가락’은 모두 ‘우리’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다.
다만 ‘밟다, 서성이다, 거닐다’의 느낌이 온전하게 다
차지한 자의 여유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음에 주목할 필
요가 있겠다. 그 약간의 불편한 마음으로 다음 연의
‘보탬 일이다’에 오면, 아하 우리들의 삶이 어떤 존재로
부터 방해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들
의 밝은 삶을 방해하는 존재들은 ‘외세, 폭압적인 세력,
내부의 이기심’ 등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다. 그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누가 무어라 해도 우
리의 국토, 우리의 나라는 바로 ‘우리’(이 때 우리는 역
사의 주체로서의 일반 백성이라 보는 것이 좋겠다)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을 볼 수 있다.

2-(2) 장마

1. ②

▶서술자는 비합리적인 할머니들의 행위를 통해 이념 대립
으로 인한 갈등이 극복될 수 있음을 말함

① 장마라는 배경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
러냄 ③ 할머니의 사투리로 보아 적절함 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문학 배경의 종류 (★)

- ㄱ. 공간적: 언어, 행동, 심리 표출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
- ㄴ. 시간적: 날짜, 요일, 계절, 년도 등
- ㄷ. 심리적: 우울함, 불안함, 기다림, 간절함 등 →해당 심리
가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냄.

▶넣어둬, 패턴 공략◀

현장감 및 생동감 높이는 요인 (★★)

: <방언>, <구어체>, <현재형>, <의성.의태>어 등의 사용

2. ④

▶㉞ : 구렁이가 원한을 풀게 되는 매개체에 해당

3. 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은 아님. 처음에는 다툼 없
이 잘 지내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고초를 겪은 이후에 갈
등이 시작된 것임

- ② 날씨는 소설 흐름의 흐름을 암시하기에 적절함
- ③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통해 알 수 있음.
- ④ “가야 헐 디가 보통 먼 질이 아닌디 여그서 이려고 총
그리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자네 노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려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통
해 알 수 있음.
- 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통해 알
수 있음.

4. ②

▶㉠와 같이 가족과 헤어져 있는 한스러운 심정을 나타내
며 누나가 (라)의 구렁이처럼 접동새로 환생.

- ①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의지
- ③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지만 환생이 없음
- ④ 대상에 대한 인식을 노래함
- ⑤ 소망에 대한 기다림

▶넣어둬, 패턴 공략◀

문학에서 ‘새’의 상징성

- ㄱ. 접동새(두견이): 한, 슬픔
- ㄴ. 까마귀: 흉조, 부정적 세력
- ㄷ. 까치: 길조, 행운

5. ③

▶외할머니가 나를 막은 것은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여겼기 때문임

6. ④

▶외할머니의 주도로 두 분 사이의 갈등이 해소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 ㄱ.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 ㄴ.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7. ⑤

▶위 글은 할머니 간의 삼촌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기는 청
년이 구렁이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 속에서 갈등을 겪으며
주제를 형상화함

- ① 위 글의 서술자는 나로 전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님
- ② 위 글도 동물이 사건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③ 보기가 치악산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증거물로 제시함
- ④ 보기에 강원도라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됨

10. ⑤

▶(가), (나), (다), (라): 발단~전개 / (마), (바): 절정 /
(사) : 결말